

# 공공도서관 공론장 경험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연구

## Exploring the Impact of Library Public Forums on Users' Perception of Libraries: A Study Based on Their Experiences

이 연 옥 (Yeon Ok Lee)\*

강 영 아 (Young Ah Kang)\*\*

장 덕 현 (Durk Hyun Chang)\*\*\*

###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

**요약:** 본 연구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일환으로 수행한 도서관 공론장이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 공론장의 경험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도서관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 공론장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으며,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의지 또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이용자들은 도서관 공론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공론장에 대한 기대 수준과 참여의지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있어서 도서관의 공론장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공론장과 연계된 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공론장, 정보서비스, 이용자 인식, 공공도서관 역할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library public forums, which are conducted as a part of the library's information services, affect users' perception of libraries. We analyzed the variations in users' perception of libraries based on their participation in public forums held by the public librarie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users from the Seongbuk Public Libraries in Seoul, which hold public forums. It was discovered that users' perception of public libraries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y had attended the library's public forums or not. The study revealed that users who participated in library public forums ha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ublic libraries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Specifically, users who participated in public forums exhibited a deeper comprehension of the library's roles, higher trust in the library, and a greater willingness to visit the library. In addition, we found that users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public forums in libraries and expressed a high level of interest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m.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library public forums on users' perception of libraries and highlighted the need for information services that are based on public forums.

**KEYWORDS:** Public Sphere, Public Forum, Information Services, User Perception, Roles of Public Libraries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K21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전문인력 교육연구단 연수연구원 (idisfeel@hanmail.net / ISNI 0000 0004 6487 2027) (제1저자)

\*\* 장위행북누림도서관 관장(kangyah@sbculture.or.kr / ISNI 0000 0005 0538 3669)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 ISNI 0000 0004 6477 1402)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3년 2월 24일 • 최초심사: 2023년 3월 2일 • 게재확정: 2023년 3월 1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1), 269-293, 2023. <http://dx.doi.org/10.16981/kliss.54.1.202303.269>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I. 서론

영국의 사회학자 Webster(2014)는 정보사회의 이론(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이라는 책에서 공공도서관은 '발전된 공론장으로 접근하는 단계'라고 주장하며 공공도서관을 대표적인 지역 사회 공론장의 하나로 보고하였다. 아울러 영국 문헌정보학자 Goulding(2009)은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거나 디지털 자료에 접근하는 곳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회합과 세미나, 프로그램 등의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서 개별 시민을 서로 연결하고, 시민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지역사회를 더 넓은 사회로 연결하는 접근점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Goulding, 2009, 47). Goulding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공공도서관을 공론장으로 바라보는 Webster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공론장은 시민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연결하여 상호 소통하는 사회적 영역을 말한다(윤영태, 2008).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정보요구를 기반으로 정보와 시민을 매개하며 대화와 토론 등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왔다는 점에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주요한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이 같은 특성과 기능에 주목하여 최근 유럽과 북미의 문헌정보학계는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을 활발하게 조명하고 있다(Alstad & Curry, 2003; Widdersheim & Koizumi, 2016; Williamson, 2000). 특히 북유럽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이 사람들과 정보를 연결하여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며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론장 역할을 수행할 것을 도서관법과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Audunson et al., 2019).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기능은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에서도 발견된다. '마을in수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성북구립도서관은 공론장을 지역주민의 일상과 지역에서 발견되는 문제와 질문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해답을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기획하였으며, 주민들이 우리 사회와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운영해왔다.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은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협력적으로 운영한 국내 첫 사례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총 67개의 공론장을 운영하였으며,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 수만 해도 총 2,173명으로 집계된다.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 운영 사례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도서관 공론장은 시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를 활성화하고, 토론을 통한 시민의 학습을 증대시키며,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이연옥, 강영아, 2023). 공론장의 이러한 성과는 지역주민의 도서관 인식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보검색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포털사이트와 검색엔진의 발전으로 개별 시민이 스스로 정보에 접근하여 입수하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정보요구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어 도서관의 정보지원 역할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도서관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내외부적으로 끌

임없이 증명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Vakkari et al., 2014). 이같이 도서관이 직면한 이중고의 상황은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가 시민의 삶에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시민의 도서관 경험과 인식을 통해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서관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존재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지를 규명하자는 의도에서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이 적극적인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해 온 공론장이 지역주민의 도서관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조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경험 여부가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도서관의 중요도, 도서관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도서관 이용의지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고찰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이 운영하는 공론장에 대해 지역주민은 어떠한 인식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공도서관 역할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정보 이용, 평생 교육,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계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IFLA-UNESCO(1996)의 공공도서관 선언에는 정보, 교육, 문화를 지원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핵심 역할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도서관법에도 공공도서관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정보 센터, 독서 및 문화센터, 교육센터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를 비롯한 교육과 문화를 지원하는 도서관 역할은 공공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 역할은 사회적 요구의 변화와 연계되어 추가되거나 확장된다. 이를테면 IFLA-UNESCO는 2022년 7월 공공도서관 선언을 개정하여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더해 지역사회에 시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추가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시민의 공통 관심을 연결하는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회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토론이 시민 참여를 추동한다며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기능할 것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Audunson et al., 2019; Buschman & Leckie, 2007; Kranich, 2012; Willingham, 2008). 이들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정보요구를 지원하며 주민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해온 도서관 역할에 주목하며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를 지원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추동할 것을 요청한다.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공론장 기능은 북유럽을 비롯하여 북미 도서관계에서 주요한 역할로 강조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의 경우 개정 도서관법을 비롯한 도서관 사명에 관련 역할을 명시하는

추세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개정 도서관법(2013)의 사명 선언문에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핀란드에서도 2016년에 공공도서관을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시민 담론과 여론 형성의 장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도서관법을 제정하였다(Audunson et al., 2019). 네덜란드 또한 공공도서관 지침(2005)에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의제, 사회적·국가적·세계적 이슈에 대한 토의를 지원하는 회합과 토론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Audunson, 2017). 미국의 경우는 미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이라는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유하는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은 지역사회의 공적인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시민의 숙의와 토론, 합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시민 참여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공론장을 통해 도서관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연옥, 강영아, 2023; Audunson et al., 2019; Goulding, 2009; Kranich, 2012).

이처럼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특성, 가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고, 관련 법과 지침에 도서관이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도서관 공론장 사례를 기초로 하는 경험적 연구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연옥, 강영아, 2023; Widdersheim & Koizumi, 2016).

국내의 경우 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을 조명한 연구로는 도서관의 공론장 사례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시도한 이연옥과 강영아(202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론장 사례를 사서와의 면담을 토대로 분석하여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공론장이 시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민 토론을 통한 학습과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이 도서관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사서와 도서관을 신뢰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공론장을 운영한 사서의 경험과 시각을 중심으로 도출한 반면 공론장에 참여한 지역주민 대상의 직접적인 조사는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주민의 경험에 기초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시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시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지식과 이해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의 사회적 위상과 가치 수준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도서관 정책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시민의 도서관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도서관과 서비스에 대한 성과 평가의 일환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가 하나의 유형으로 존재한다(이성신, 2013; 이현정, 남영준, 2015; 차성중, 2011). 또 다른 유형의 시민의 도서관 인식 연구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운영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김선애, 권나현, 2020; 이희수, 김기영, 2014; 장덕현, 2020; 장덕현, 강은영, 2012; 조용완, 구정화, 2021; 표순희, 차미경, 2018). 이들 연구의 초점은 도서관 운영 방안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기에 도서관 중요도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비롯하여 도서관 이용 실태, 시설과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 시민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 중에서 일부는 도서관에 대한 요구 조사와 함께 도서관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기대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계획과 운영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관련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서관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과 기대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희수와 김기영(2014)은 시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지식정보센터, 평생교육센터, 복합문화공간, 레저여가센터, 생활편의센터라는 5가지 역할에 기초하여 지역별 시민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지역 유형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표순희, 차미경(2018)은 도서관 역할 유형을 교육 지원, 업무 지원, 정보 등의 일상생활 지원, 여가 및 문화 지원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와 사서의 인식 차이를 고찰하였다. 이상의 두 연구가 주로 정보제공, 교육, 문화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역할을 중심으로 시민 인식을 살펴본 반면에, 김선애와 권나현의 연구(2020)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정보제공, 독서, 교육, 여가와 문화, 체험과 창작 활동 공간, 복합생활 공간, 지역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 지역 소식을 얻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조사하고 있다.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지역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 지역 소식을 얻는 공간 등을 추가하여 분석하고 있다.

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을 중심으로 시민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해외 연구에서 발견된다. Audunson et al.(2019)는 6개 국가(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헝가리, 스위스)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공론장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였다. 도서관 역할을 일상 정보, 시민 정보, 학습, 독서, 문화유산, 의미 있는 여가, 창의와 혁신, 만남의 장소, 지식 및 문화에 대한 평등, 디지털의 평등 실현, 통합, 사회적 토론의 장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인식을 비교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공론장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도서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Vakkari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성과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인식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유용성을 분석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시민이 인식하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학습, 일상생활, 일과 업무, 문화 활동이라는 4영역과 그 하위에 22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 중 문화 활동 영역의 하위 지표에 역사와 사회에 대한 관심, 사회적 토론이라는 도서관의 공론장 역할과 관련한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이상의 도서관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도서관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기대를 비롯하여 도서관의 유용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도서관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험이 시민의 도서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 연구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를 지원하는 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역할 수행에 따른 이용자의 경험이 도서관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상의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인식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으로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도서관 중요도, 도서관에 대한 신뢰, 도서관 이용의지를 구성하여 시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전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도서관 역할은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자료 제공, 독서 증진, 교육 및 학습 지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만남의 장소, 대화와 토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및 관심을 비롯한 공론장과 관련한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도서관의 주요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3.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 운영 현황

#### 가.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현황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이 위치한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나로 약 4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성북구는 2002년 성북정보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총 15개의 구립도서관(작은도서관 2개관 포함)을 건립하였다(〈표 1〉참고). 도서관 건립에 적절한 위치와 면적을 찾기 어려운 대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의 단독 건물로 건립된 도서관부터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과 함께 조성되어 운영되는 도서관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 15개 성북구립도서관은 건립 이후 성북문화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 모든 구립도서관은 각 관별로 자료수집,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지만, 도서관 운영의 방향 설정, 주요 사업은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된 자료관리 시스템과 운영 규정을 기반으로 이용자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자료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1〉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현황

| 번호 | 도서관명      | 설립일         | 번호 | 도서관명      | 설립일         |
|----|-----------|-------------|----|-----------|-------------|
| 1  | 성북정보도서관   | 2002.03.19. | 9  | 청수도서관     | 2014.02.19. |
| 2  | 아리랑도서관    | 2004.05.04. | 10 | 월곡꿈그림도서관  | 2017.07.22. |
| 3  | 해오름도서관    | 2009.07.01. | 11 | 아리랑어린이도서관 | 2017.12.22. |
| 4  | 중암동새날도서관  | 2011.02.25. | 12 | 성북이음도서관   | 2018.07.27. |
| 5  | 서경로꿈마루도서관 | 2011.08.23. | 13 | 장위행복누림도서관 | 2019.06.28. |
| 6  | 석관동미리내도서관 | 2011.12.27. | 14 | 성북길빛도서관   | 2019.12.19. |
| 7  | 달빛마루도서관   | 2012.02.02. | 15 | 글빛도서관     | 2021.05.27. |
| 8  | 정릉도서관     | 2013.05.03. |    |           |             |

나.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 ‘마을in수다’ 운영 현황

성북구립도서관은 2016년부터 공론장을 ‘마을in수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성북구의 핵심 정책 기조인 ‘주민자치역량으로 생활, 골목, 마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도서관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용하여 도서관 공론장을 시도하게 되었다. 공론장을 지역사회 문제와 주민의 관심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설정하였고, 주민이 공론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발적인 학습과 사유, 공공성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였다. 도서관은 공론장의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 개인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고민과 관심을 발굴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이러한 의제에 대한 주민의 활발한 토론 참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공론장은 찬반 토론 또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비중을 두며 이를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해인 2016년에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공론장에 대한 정보와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2개 도서관이 시범적으로 ‘마을in수다’를 운영하였고 같은 해에 이를 보완하여 다른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으로 확대하였다. 2017년부터 ‘마을in수다’는 성북구립도서관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성북구립도서관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한 공론장의 주요 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7년간 총 67개의 공론장을 운영하였으며, 참여 주민 수는 총 2,173명이다.

<표 2>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공론장 운영 현황

| 연도   | 공론장수 | 참여 도서관   | 주제 의제  | 참여자수 |
|------|------|--|--|------|
| 2016 | 10   |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 작은도서관네트워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총 8개 구립도서관, 도서관 외 2개 기관) | 인간관계의 갈등, 도시 속 생태, 혁신교육, 나이 들, 배려, 미세먼지, 꿈, 교육, 불안, 자녀독서   | 601  |
| 2017 | 10   | 성북정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총 5개 구립도서관)   | 마을과 함께 하는 자녀 교육, 마을 쓰레기, 지역도서관 역할, 우리 마을 고민 공유, 청소년공간 구성과 문화, 세대 소통, 마을에서 행복 찾기, 시니어 삶, 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동체 | 336  |
| 2018 | 6    |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총 6개 구립도서관)   | 환경오염, 노년생활,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 마을학교, 마을 만들기, 반려동물 관리  | 267  |
| 2019 | 5    | 성북정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정릉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총 5개 구립도서관)   | 도시재생, 디지털 시대 함께 살아남기, 청소년공간, 일과 삶의 균형, 마을공동체   | 293  |
| 2020 | 22   | 성북정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정릉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총 5개 구립도서관)   | 이웃과 함께 살기, 쓰레기 문제, 관계와 마을, 마을과 도서관, 비대면 관계, 환경과 소비 등   | 215  |

| 연도   | 공론장수 | 참여 도서관  | 주제 의제  | 참여자수  |
|------|------|---|--|-------|
| 2021 | 7    | 성북정보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총 7개 구립도서관)   | 기후위기의 공정성, 기후위기 해결방안, 착한 소비, 청년의 삶, 자원순환, 환경, 삶을 바꾸는 소비        | 221   |
| 2022 | 7    | 성북정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청수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성북길빛도서관(총 7개 구립도서관) | 안전, 문화도시 만들기, 코로나 이후의 삶, 스마트폰 중독, 무해한 소비, 고령화 사회, 로봇의 시대 사람의 일 | 240   |
| 계    | 67   |   |  | 2,173 |

[출처: 성북구립도서관, 2018: 2019: 2022]

공론장의 주요 의제는 인간관계의 갈등, 자녀교육, 안전, 환경오염 등 우리 사회의 문제, 지역사회 현안, 주민의 고민과 관심을 토대로 설정되고 있으며 성북구립도서관은 지역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공론장의 의제로 담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공론장을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주민의 공론장 참여를 촉진하고, 활발한 공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와 관련한 워크숍, 강좌, 탐방, 독서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공론장 개최 전과 후에 진행하고 있으며, 의제와 관련한 자료개발과 정보제공, 전시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운영한다.

###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공론장 경험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차이를 조사하고,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분석하고자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1.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도서관 인식 분석을 위한 설문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19문항),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인식과 평가(9문항), 도서관 이용의 특성(2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4문항)이라는 4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총 34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 영역은 도서관 인식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서관 역할, 도서관 중요도, 도서관에 대한 신뢰, 이용의지, 친근감을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도서관 역할은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자료 제공, 독서 증진, 교육 및 학습 지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만남의 장소, 대화와 토론을 비롯하여 공론장의 기능과 특성으로 대표되는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촉진, 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 지원, 사회 이슈 공유 및 지역사회 개선,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활성화 및 공론 형성, 민주주의 지원을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영역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답변하도록 설계되었다.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평가 영역은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인지 여부, 참여 여부 및 향후 참여 의향을 비롯하여 도서관 공론장의 중요도,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기대 수준과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도서관 공론장의 중요도와 기대수준 문항에서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 영역                 | 항목                | 문항수 | 출처   |
|--------------------|-------------------|-----|--|
| 도서관에 대한 인식         | 도서관 역할            | 11  | 김선애, 권나현(2020)<br>도서관법(법률 제17706호<br>일부개정 2020.12.22.)<br>이연옥, 강영아(2023)<br>이희수, 김기영(2014)<br>표순희, 차미경(2018)<br>Audunson et al.(2019)<br>Goulding(2009)<br>IFLA(1996)<br>IFLA(2022)<br>Kranich(2012)<br>Leckie, Buschman(2007)<br>Vakkari et al.(2014) |
|                    | 도서관의 중요도          | 3   | 김선애, 권나현(2020)   |
|                    | 도서관에 대한 신뢰        | 1   | 이연옥, 강영아(2023)   |
|                    | 도서관 이용의지          | 3   | 장덕현, 강은영(2012)   |
|                    |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       | 1   | 조용완, 구정화(2021)   |
|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인식과 평가 |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인지 여부 | 1   | 이연옥, 강영아(2023)<br>Audunson et al.(2019)<br>Goulding(2009)<br>Kranich(2012)   |
|                    | 도서관 공론장의 참여 여부    | 1   |  |
|                    | 도서관 공론장의 중요도      | 1   |  |
|                    |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기대 수준 | 4   |  |
|                    | 도서관 공론장 참여 의향     | 1   |  |
| 도서관 이용의 특성         | 경험자의 도서관 공론장 평가   | 1   |  |
|                    | 이용 빈도             | 1   |  |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이용 목적             | 1   |  |
|                    | 성별                | 1   |  |
|                    | 연령                | 1   |  |
|                    | 직업                | 1   |  |
|                    | 거주 지역             | 1   |  |
| 계                  |                   | 34  |  |

## 2.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대한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도서관 인식 척도 문항 19개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고자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varimax 회전 방법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본 적합도는 0.925로 나타나 본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x^2=4766.012$ ,  $p=0.000$ 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 척도'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요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도서관 인식 요인을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역할, 공론장 역할, 도서관의 중요도,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신뢰 및 이용의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표 4〉 참조).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있어서도 전체 19개의 문항의 Cronbach  $\alpha$ 값이 0.938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고, 하위 4개의 요인에서도 최소 0.704~최대 0.945의 범위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표 4〉 도서관 인식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 항목                                    | 요인 분석        |                       |             |          | 신뢰도                 |
|---------------------------------------|--------------|-----------------------|-------------|----------|---------------------|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요인 4     | Cronbach's $\alpha$ |
| 역할10-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활성화 및 공론 형성         | .891         | .193                  | .164        | .044     | 0.945               |
| 역할8-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 지원                   | .871         | .208                  | .165        | .112     |                     |
| 역할9-사회 이슈 공유 및 지역사회 개선                | .858         | .202                  | .169        | .116     |                     |
| 역할7-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촉진                   | .844         | .209                  | .207        | .119     |                     |
| 역할11-민주주의 지원                          | .819         | .260                  | .250        | .087     |                     |
| 역할6-대화와 토론                            | .612         | .156                  | .541        | .163     |                     |
| 역할5-만남의 장소                            | .581         | .078                  | .576        | .157     |                     |
| 도서관 이용의지1-도서관 방문 빈도 확대                | .187         | .836                  | .223        | .149     | 0.893               |
|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                           | .189         | .797                  | .291        | .174     |                     |
| 도서관에 대한 신뢰                            | .237         | .780                  | .310        | .164     |                     |
| 도서관 이용의지2-지인 추천                       | .224         | .766                  | .208        | .170     |                     |
| 도서관 이용의지3-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확대            | .468         | .566                  | .093        | .188     |                     |
| 역할3-학습 및 교육 지원                        | .208         | .221                  | .779        | .160     | 0.874               |
| 역할2-독서 증진                             | .235         | .259                  | .768        | .173     |                     |
| 역할1-정보자료 제공                           | .136         | .248                  | .746        | .185     |                     |
| 역할4-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 .263         | .348                  | .687        | .185     |                     |
| 중요도2-도서관이 폐쇄된다면 나와 우리 가족에 크게 영향       | .159         | .170                  | .181        | .823     | 0.704               |
| 중요도1-도서관이 폐쇄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           | .100         | .299                  | .109        | .786     |                     |
| 중요도3-정보자료 접근의 용이성으로 공공도서관이 불필요함 (역선택) | .075         | .074                  | .215        | .625     |                     |
| 요인명                                   | 도서관의 공론장 역할  |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신뢰 및 이용의지 |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 | 도서관의 중요도 |                     |
| 고유값(Eigen-value)                      | 9.31         | 2.15                  | 1.37        | 1.16     |                     |
| 설명력(%)                                | 49.035       | 11.333                | 7.231       | 6.115    | 설명된 총 분산: 73.715(%) |
| KMO의 표본적합도 검정                         |              |                       |             |          | .925                |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Approx $x^2$ |                       |             |          | 4766.012            |
|                                       | 자유도(df)      |                       |             |          | 171                 |
|                                       | p            |                       |             |          | .000***             |

\* $p<.05$ , \*\* $p<.01$ , \*\*\* $p<.001$

### 3. 데이터 수집

이용자의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경험 여부에 따라 도서관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설문 데이터는 A와 B라는 두 유형의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A그룹은 서울 성북구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로서 공론장 경험자를 구성하였으며, B그룹은 서울 성북구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로서 공론장 비경험자를 구성하였다. 도서관 공론장 경험자인 A그룹은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이 2022년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운영한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할당 표집하였다. 공론장을 운영한 7개의 도서관에 설문지를 각 20부씩 140부를 배포하여 105부를 회수하였다. B그룹은 성북구 도서관 이용자이면서 공론장 비경험자로 성북구 15개 도서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당 표집하였다. 설문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150부의 설문지를 도서관별로 할당 배포하여 10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부실한 응답지 2부를 제외한 10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두 그룹으로부터 회수된 총 211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도서관이용의 특성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전체 응답자 211명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25.6%(54명), 여성이 73.9%(156명)이며, 연령은 20대(24.1%), 40대(23.7%), 30대(20.9%), 50대(20.4%)가 골고루 분포하며, 60대 이상은 10.9%를 차지하고 있다. 공론장 경험자 집단은 30대, 40대, 50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60대 이상이 7.1%, 20대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비경험자집단은 20대가 19.9%로 가장 많으며,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는 직장인이 41.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주부(19.9%), 학생(14.7%), 자영업(7.6%), 문화예술인(5.7), 취업준비자(5.7%), 은퇴자(3.3%), 기타(1.4%) 순으로 확인된다. 두 집단별 직업별 분포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론장 경험자 집단에서 학생이 0.5%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비경험자 집단에서는 14.2%를 차지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분포를 보면, 성북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63%(133명)이며, 성북구 이외의 구에 거주하며 성북구가 직장 및 학교라고 답한 응답자가 19.4%(41명), 성북구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7.5%(37명)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도서관 이용 특성

(N = 211)

| 구분               |    | 공론장 경험자(%) | 공론장 비경험자(%) | 계(%)      |            |
|------------------|----|------------|-------------|-----------|------------|
| 인구<br>통계학적<br>특성 | 성별 | 남          | 24(11.4)    | 30(14.2)  | 54(25.6)   |
|                  |    | 여          | 80(37.9)    | 76(36)    | 156(73.9)  |
|                  |    | 무응답        | 1(0.5)      | 0         | 1(0.5)     |
|                  |    | 계          | 105(49.8)   | 106(50.2) | 211(100.0) |
|                  | 연령 | 20대        | 9(4.3)      | 42(19.9)  | 51(24.2)   |
|                  |    | 30대        | 29(13.7)    | 15(7.1)   | 44(20.9)   |
|                  |    | 40대        | 25(11.8)    | 25(11.8)  | 50(23.7)   |
|                  |    | 50대        | 27(12.8)    | 16(7.6)   | 43(20.4)   |
|                  |    | 60대 이상     | 15(7.1)     | 0         | 23(10.9)   |
|                  |    | 계          | 105(49.8)   | 106(50.2) | 211(100.0) |

| 구분                  |       | 공론장 경험자(%)    | 공론장 비경험자(%) | 계(%)       |            |
|---------------------|-------|---------------|-------------|------------|------------|
| 도서관<br>이용의<br>특성    | 직업    | 직장인           | 54(25.6)    | 34(16.1)   | 88(41.7)   |
|                     |       | 자영업           | 10(4.7)     | 6(2.8)     | 16(7.6)    |
|                     |       | 학생            | 1(0.5)      | 30(14.2)   | 31(14.7)   |
|                     |       | 주부            | 24(11.4)    | 18(8.5)    | 42(19.9)   |
|                     |       | 문화예술인         | 8(3.8)      | 4(1.9)     | 12(5.7)    |
|                     |       | 취업준비자(재취업)    | 2(0.9)      | 10(4.7)    | 12(5.7)    |
|                     |       | 은퇴자           | 5(2.4)      | 2(0.9)     | 7(3.3)     |
|                     |       | 기타            | 1(0.5)      | 2(0.9)     | 3(1.4)     |
|                     | 계     | 105(49.8)     | 106(50.2)   | 211(100.0) |            |
|                     | 거주지역  | 성북구가 거주 지역    | 70(33.2)    | 63(29.9)   | 133(63.0)  |
|                     |       | 성북구가 직장 및 학교  | 20(9.5)     | 21(10.0)   | 41(19.4)   |
|                     |       | 성북구 이외 지역 거주  | 15(7.1)     | 22(10.4)   | 37(17.5)   |
|                     |       | 계             | 105(49.8)   | 106(50.2)  | 211(100.0) |
|                     | 이용 빈도 | 이용 빈도         | 주 1회 이상     | 45(21.3)   | 56(26.5)   |
| 월 2회                |       |               | 24(11.4)    | 20(9.5)    | 44(20.9)   |
| 월 1회                |       |               | 28(13.3)    | 21(10)     | 49(23.2)   |
| 1년에 6회 미만           |       |               | 8(3.8)      | 9(4.3)     | 17(8.1)    |
| 계                   |       |               | 105(49.8)   | 106(50.2)  | 211(100.0) |
| 이용 목적<br>(복수<br>응답) |       | 자료대출          | 79(24.6)    | 76(23.7)   | 155(48.3)  |
|                     |       |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 59(18.4)    | 19(5.9)    | 78(24.3)   |
|                     |       | 동아리 활동        | 19(5.9)     | 9(2.8)     | 28(8.7)    |
|                     |       | 개인 학습 및 조사 연구 | 11(3.4)     | 21(6.5)    | 32(10.0)   |
|                     |       | 여가활용          | 4(1.3)      | 24(7.5)    | 28(8.7)    |
| 계                   |       |               | 321(100.0)  |            |            |

또한 전체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용 빈도는 주 1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적극적인 이용자가 47.9%(101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월 1회에서 2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44.1%로 나타났으며, 1년에 도서관을 6회 미만 이용하는 경우는 6.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론장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용빈도별 분포는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50%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은 자료대출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한다고 하였으며, 자료대출 이외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24.30%), 개인 학습 및 조사연구(9.97%), 동아리 활동(8.72%)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두 집단 동일하게 자료대출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SPSS 2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도서관 이용의 특성과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공론장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경험 유무에 따라 도서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이용자의 공공도서관 인식

우선, 설문에 참가한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와 도서관 인식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 중에서 도서관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표 6〉 참고). 그 결과, 공공도서관 역할 중에서 ‘정보자료 제공 역할’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자료 제공 역할’은 이용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주된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이용자들은 ‘지역주민의 독서 증진’,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학습과 교육 지원’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정보, 교육, 독서, 문화를 지원하는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도서관의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인식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내고 토론 참여를 유도하는 일련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 구 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N   | M    | SD   |
|--------|---|-----------|--------|-------|-----|--------|-----|------|------|
| 도서관 역할 | 1-공공도서관은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0         | 0      | 3     | 74  | 134    | 211 | 4.62 | .515 |
|        | 2-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를 증진한다   | 0         | 0      | 9     | 93  | 109    | 211 | 4.47 | .580 |
|        | 3-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학습과 교육을 지원한다   | 0         | 1      | 11    | 95  | 104    | 211 | 4.43 | .616 |
|        | 4-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 0         | 0      | 11    | 92  | 108    | 211 | 4.46 | .595 |
|        | 5-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새로운 만남과 관계가 만들어진다                      | 1         | 4      | 35    | 88  | 83     | 211 | 4.18 | .806 |
|        | 6-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대화와 토론이 촉진된다                           | 1         | 8      | 32    | 92  | 78     | 211 | 4.13 | .838 |
|        | 7-공공도서관은 우리 사회와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이 생기도록 지원한다                         | 3         | 15     | 53    | 83  | 57     | 211 | 3.92 | .897 |
|        | 8-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자료는 우리 사회 및 지역의 주요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         | 10     | 51    | 87  | 61     | 211 | 3.92 | .897 |
|        | 9-공공도서관은 우리 사회나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개선에 기여한다   | 2         | 4      | 44    | 98  | 63     | 211 | 4.02 | .819 |
|        | 10-공공도서관은 우리 사회나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론 형성을 지원한다  | 2         | 10     | 53    | 91  | 55     | 211 | 3.89 | .882 |
|        | 11-공공도서관은 우리 사회나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자료의 제공과 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고무시킨다 | 0         | 10     | 62    | 81  | 58     | 211 | 3.89 | .865 |

| 구 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N   | M    | SD   |
|--|--|-----------------|-----------|----------|-----|-----------|-----|------|------|
| 도서관의<br>중요도                            | 1-나는 우리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이 폐쇄된다면 나와 우리 가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 2               | 5         | 31       | 77  | 96        | 211 | 4.23 | .855 |
|  | 2-나는 우리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이 폐쇄된다면 우리 지역사회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 1               | 2         | 10       | 82  | 116       | 211 | 4.47 | .678 |
|  | 3-나는 대부분의 정보자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역순)   | 3               | 3         | 5        | 85  | 115       | 211 | 4.45 | .744 |
| 도서관에<br>대한<br>친근감<br>· 신뢰<br>및<br>이용의지 | 1-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이 커졌다                        | 0               | 1         | 11       | 87  | 112       | 211 | 4.47 | .619 |
|  | 2-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신뢰감이 커졌다                        | 0               | 1         | 20       | 113 | 77        | 211 | 4.27 | .642 |
|  | 3-공공도서관을 더 자주 방문할 생각이다                                 | 0               | 1         | 20       | 88  | 102       | 211 | 4.38 | .675 |
|  | 4-공공도서관 방문을 지인들에게 권할 생각이다                              | 0               | 3         | 21       | 85  | 102       | 211 | 4.36 | .718 |
|  | 5-공공도서관에서 아직 체험하지 못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해볼 생각이다              | 0               | 2         | 30       | 101 | 78        | 211 | 4.21 | .713 |
| 평균                                     |  |                 |           |          |     |           | 211 | 4.31 | .483 |

이어서,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이용자의 경험 여부가 도서관 인식에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이를 위해 공론장 경험 여부에 따라 도서관 인식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7〉 참고). 그 결과  $t=3.998$ ,  $p=0.000$ 으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평균이 4.18인 것에 비해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은 4.44로 나타나 경험자의 도서관 인식 수준이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공론장 경험 여부에 따른 도서관 인식 차이

| 구 분  | N   | M    | SD   | <i>t</i> ( <i>p</i> ) |
|------|-----|------|------|-----------------------|
| 경험자  | 105 | 4.44 | .421 | 3.998(0.000)***       |
| 비경험자 | 106 | 4.18 | .505 |                       |

\* $p<.05$ , \*\* $p<.01$ , \*\*\* $p<.001$

다음으로, 도서관 인식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인별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즉 도서관 인식을 구성하는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 도서관의 공론장 역할, 도서관의 중요도,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신뢰 및 이용의지 요인을 중심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는데, 하위 구성요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표 8〉 참고).

우선, 정보자료 제공, 교육과 학습, 독서, 문화 및 여가 지원으로 대표되는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공론장 경험자의 인식 수준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t=6.001, p<.001$ ). 도서관 공론장 역할에 대한 경험자의 인식 평균이 4.30인 것에 비해 비경험자의 인식은 3.77로 나타나 공론장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경험자의 인식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의 중요도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서는 경험자가 4.45, 비경험자가 4.32로 경험자의 도서관 중요도에 대한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신뢰 및 이용의지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t=3.111, p<.01$ ). 경험자의 인식 평균이 4.46인데 비해, 비경험자는 4.22로 확인되어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신뢰 및 이용의지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도서관 인식의 하위 구성 요인 인식 차이

| 구 분                   |      | N   | M    | SD     | t(p)            |
|-----------------------|------|-----|------|--------|-----------------|
|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           | 경험자  | 105 | 4.56 | .49669 | 1.744(0.083)    |
|                       | 비경험자 | 106 | 4.44 | .50951 |                 |
| 도서관의 공론장 역할           | 경험자  | 105 | 4.30 | .57105 | 6.001(0.000)*** |
|                       | 비경험자 | 106 | 3.77 | .70417 |                 |
| 도서관의 중요도              | 경험자  | 105 | 4.45 | .55850 | 1.525(0.129)    |
|                       | 비경험자 | 106 | 4.32 | .70129 |                 |
|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신뢰 및 이용의지 | 경험자  | 105 | 4.46 | .50115 | 3.111(0.002)**  |
|                       | 비경험자 | 106 | 4.22 | .61393 |                 |

\* $p<.05$ , \*\* $p<.01$ , \*\*\* $p<.001$

이에 더해,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신뢰 및 이용의지 요인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보았다(〈표 9〉 참고).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의 평균은 공론장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도서관에 대한 신뢰와 도서관 이용의지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4.50, 비경험자가 4.03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확인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5.655, p<.001$ ). 또한 도서관 이용의지에 있어서는 경험자가 4.42, 비경험자가 4.20으로 경험자의 이용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2.546, p<.05$ ). 따라서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 집단이 비경험 집단에 비해 도서관에 대한 신뢰와 도서관 이용의지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신뢰 및 이용의지 차이

| 구 분            |      | N   | M    | SD   | t(p)            |
|----------------|------|-----|------|------|-----------------|
| 도서관에 대한<br>친근감 | 경험자  | 105 | 4.51 | .557 | 1.053(0.294)    |
|                | 비경험자 | 106 | 4.42 | .675 |                 |
| 도서관에 대한<br>신뢰  | 경험자  | 105 | 4.50 | .521 | 5.655(0.000)*** |
|                | 비경험자 | 106 | 4.03 | .668 |                 |
| 도서관<br>이용의지    | 경험자  | 105 | 4.42 | .551 | 2.546(0.012)*   |
|                | 비경험자 | 106 | 4.20 | .667 |                 |

\* $p < .05$ , \*\* $p < .01$ , \*\*\* $p < .001$

## 2.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인식과 평가

이용자의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인지 여부, 도서관 공론장의 중요도 및 기대 수준, 참여 의향을 중심으로 확인해보았다.

이용자에게 도서관이 운영하는 공론장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9%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0〉 참고).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참여 경험이 없는 이용자 중에서는 30.2%가 도서관 공론장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인지 여부

| 구분   | 예(%)      | 아니오(%)   | 계(%)       |
|------|-----------|----------|------------|
| 경험자  | 105(49.8) | 0(0)     | 105(49.8)  |
| 비경험자 | 32(15.2)  | 74(35.1) | 106(50.2)  |
| 계    | 137(64.9) | 74(35.1) | 211(100.0) |

이어서, 이용자들은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표 11〉 참고). 전체 응답자의 83.8%('중요하다' 46.9%, '매우 중요하다' 36.9%)가 도서관이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 집단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비경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t=4.488, p<.001$ ).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 집단의 평균이 4.41, 비경험자 집단이 3.95로 경험자가 공공도서관이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험자의 91.43%(95명)가 도서관 공론장이 중요하다 평가하고 있으나 비경험자의 경우도 77.36%(82명)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전반적으로 도서관 공론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도서관 공론장의 중요도

| 구분   | 전혀<br>중요하지<br>않다 | 중요하지<br>않다 | 보통이다     | 중요하다     | 매우<br>중요하다 | N   | M    | SD   | t(p)            |
|------|------------------|------------|----------|----------|------------|-----|------|------|-----------------|
| 경험자  | 0                | 0          | 10(4.7)  | 42(19.9) | 53(25.1)   | 105 | 4.41 | .661 | 4,488(0.000)*** |
| 비경험자 | 1(0.5)           | 4(1.9)     | 19(9.0)  | 57(27.0) | 25(11.8)   | 106 | 3.95 | .809 |                 |
| 계    | 1(0.5)           | 4(1.9)     | 29(13.7) | 99(46.9) | 78(37.0)   | 211 | 4.18 | .772 |                 |

\*p<.05, \*\*p<.01, \*\*\*p<.001

이에 더해,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 수준을 파악해보았다(〈표 12〉 참고). 공론장의 사회적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주민의 공론 주제에 대한 이해와 학습, 주민의 만남과 교류,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이라는 네 가지 항목(이연옥, 강영아, 2023: Audunson et al., 2019; Goulding, 2009; Kranich, 2012)을 토대로 이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의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기대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공론장 운영이 ‘주민의 공론 주제에 대한 이해와 학습(89.6%)’, ‘주민의 만남과 교류(85.8%)’,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80.6%)’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다른 항목에 비해 기대 수준이 조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12〉 도서관 공론장 대한 기대 수준

| 구분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N   | M    | SD   |
|--------------------------------------|-----------------|-----------|----------|-----------|-----------|-----|------|------|
| 주민의 공론 주제에 대한 이해와 학습에<br>도움 될 것이라 기대 | 0               | 2(0.9)    | 20(9.5)  | 108(51.2) | 81(38.4)  | 211 | 4.27 | .668 |
| 주민의 만남과 교류에 도움 될 것이라<br>기대           | 0               | 3(1.4)    | 27(12.8) | 104(49.3) | 77(36.5)  | 211 | 4.21 | .713 |
|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 될 것이라<br>기대          | 1               | 6(2.8)    | 42(19.9) | 95(45.0)  | 67(31.8)  | 211 | 4.05 | .821 |
|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에 도움 될 것이라<br>기대          | 1               | 4(1.9)    | 36(17.1) | 100(47.4) | 70(33.2)  | 211 | 4.11 | .782 |

또한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 수준이 공론장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의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표 13〉 참고).

〈표 13〉 도서관 공론장 대한 기대 수준 차이

| 구분                                |      | N   | M    | SD   | t(p)            |
|-----------------------------------|------|-----|------|------|-----------------|
| 공론 주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학습에 도움 될 것이라 기대 | 경험자  | 105 | 4.41 | .631 | 3.079(0.002)**  |
|                                   | 비경험자 | 106 | 4.13 | .677 |                 |
| 주민의 만남과 교류에 도움 될 것이라 기대           | 경험자  | 105 | 4.39 | .596 | 3.805(0.000)*** |
|                                   | 비경험자 | 106 | 4.03 | .774 |                 |
|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 될 것이라 기대          | 경험자  | 105 | 4.19 | .822 | 2.553(0.011)*   |
|                                   | 비경험자 | 106 | 3.91 | .799 |                 |
|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에 도움 될 것이라 기대          | 경험자  | 105 | 4.26 | .747 | 2.781(0.006)**  |
|                                   | 비경험자 | 106 | 3.96 | .792 |                 |

\*p<.05, \*\*p<.01, \*\*\*p<.001

다음으로 이용자에게 도서관이 향후 공론장을 운영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표 14〉 참고). 응답자의 76.78%(162명)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하지 않은 이용자의 59.43%(63명)도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의 경우는 참여자의 94.29%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참여에 부정적인 비율은 5.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향후 도서관 공론장 참여 의향

N=211

| 구분          | 예(%)       | 아니오(%)    | 계(%)     |
|-------------|------------|-----------|----------|
| 경험자         | 99(94.29)  | 6(5.71)   | 105(100) |
| 비경험자        | 63(59.43)  | 43(40.57) | 106(100) |
| 계           | 162(76.78) | 49(23.22) | 211(100) |
| $\chi^2(p)$ | 35.627***  |           |          |

\*p<.05, \*\*p<.01, \*\*\*p<.001

또한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참여 의지를 경험자의 참여 빈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 105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공론장에 참여한 빈도수를 파악해보았는데, 1회 참가가 41%였으며, 2회 이상 참여한 이용자가 무려 61%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재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표 15〉 참고).

〈표 15〉 도서관 공론장 참여 빈도

N=105

| 구분    | N   | %     |
|-------|-----|-------|
| 1회    | 44  | 41.9  |
| 2-3회  | 43  | 41.0  |
| 4-5회  | 9   | 8.6   |
| 6회 이상 | 9   | 8.6   |
| 계     | 105 | 100.0 |

한편,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공론장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를 파악해보았다(〈표 16〉 참고). 이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도서관 공론장에서 유익했던 점이 무엇인지 질의해보았다. 그 결과, 참여 이용자들은 도서관 공론장을 통해 “우리 사회와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많이 알게 되었다”는 항목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전체 항목 중에서 33.44%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와 지역의 이슈에 대해 주역주민들과 토론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점”(22.95%)을 높은 빈도로 거론하였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사는 다양한 주민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가 18.03%, “우리 사회와 지역의 주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민이 함께 모색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14.76%로 확인되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커졌다”는 전체 응답 항목 비율에서 0.82%를 차지하여 언급 빈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론장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공론장이 사회와 지역의 이슈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내고, 이에 대해 주민 상호 간에 소통하며 공감하는 데 유익하다는 인식과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도서관 공론장 참여자의 공론장 평가(복수응답)

N=105

| 구분  | N   | %      |
|---|-----|--------|
| 우리 사회와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많이 알게 되었다                   | 102 | 33.44  |
| 우리 사회와 지역의 주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민이 함께 모색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 45  | 14.76  |
| 우리 지역에 사는 다양한 주민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                              | 55  | 18.03  |
| 우리 사회와 지역의 이슈에 대해 주역주민들과 토론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 70  | 22.95  |
| 우리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커졌다  | 33  | 10.82  |
| 계   | 305 | 100.00 |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서관 공론장이 지역주민의 도서관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 공론장의 경험 여부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차이를 조사하고,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결과와 관련한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의 ‘정보자료 제공 역할’을 주된 역할로 이해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보, 교육, 독서, 문화를 지원하는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반면에 도서관의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의 대화와 토론 촉진'하는 기능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내고 토론 참여를 유도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더해,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은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이용자의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수준이 비경험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서관 인식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인에서도 공론장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보제공, 교육, 독서, 문화 및 여가 지원으로 대표되는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경험자의 인식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도서관 인식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 중 이용자의 도서관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 인식에서는 공론장의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도서관에 대한 신뢰와 도서관 이용의지 항목에 있어서는 두 집단의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신뢰가 보다 높았으며, 도서관에 대한 이용의지 또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용자들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일수록 도서관 공론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대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경험자들도 도서관 공론장을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도서관 공론장 경험 유무에 따라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이 높으며, 도서관에 대한 신뢰와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의지 또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공론장의 경험 유무를 떠나 이용자의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중요도와 기대도, 참여 의지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수준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서관이 공론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로 판단된다. 특히, 도서관 공론장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발생했다는 본 연구결과를 주의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을 '정보자료 제공기관'으로 인식하였으나 공론장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게 되면서 도서관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자들이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 공론장 사례를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고찰한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연옥, 강영아(2023)의 연구에서는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한 주민들이 사서를 사람과 정보를 중개하는 정보전문가로 인식하는 등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여 규명한 것이 아니라 공론장을 운영한 사서들의 경험과 관찰에 입각한 평가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판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공론장 참여가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론장에 참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명한 것이기에 이연옥과 강영아(2023)의 연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그 배경에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론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정보요구를 지원하는 일환으로 공론장을 운영하였으며, 공론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수행하였다. 이를테면 지역사회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공론장 의제를 설정하였으며, 공론 활성화를 위해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정보서비스는 도서관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특정 의제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이 활성화되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이연옥, 강영아, 2023). 이처럼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와 연계된 공론장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를 비롯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시민의 도서관 인식이 사서의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특히 주민의 정보요구를 지원하는 사서의 정보서비스를 통해 선진화될 수 있다고 한 이계환(2020)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의 정보적 역할과 서비스가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김초혜와 김기영(2021)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이용자의 도서관 중요도와 도서관 친근감에 대한 인식에서 공론장의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도서관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 점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의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서관에 우호적인 한국인의 인식 경향이 본 연구의 이용자에게도 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김선애, 권나현, 2020; 장덕현, 강은영, 2012).

다른 한편,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별 시민이 스스로 정보에 접근하여 입수하는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통해 정보요구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도서관의 정보 지원 역할이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공론장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지원 역할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성북구립도서관의 사례는 도서관 공론장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신뢰와 인식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이 도서관의 활동에 문헌정보학과 공공도서관 현장 사서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공론장이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성과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에서 공론장에

대한 논의와 적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다양한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공론장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으며 존재 가치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도서관 인식 조사는 서울 성북구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기에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은 잠재 이용자를 포함한 성북구 전체 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조사 범위를 넓혀 서울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인식 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성북구 이외 지역의 주민으로 조사를 확대하여 도서관 인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선애, 권나현 (2020). 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마포 구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29-52.  
<http://10.4275/KSLIS.2020.54.2.029>
- 김초혜, 김기영 (2021).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사서 전문성의 매개효과 연구: 도서관 활동 경험이 도서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보관리학회지, 38(4), 83-112.
- 성북구립도서관 (2018). 2017 마을in수다. 서울: 성북문화재단.
- 성북구립도서관 (2019). 2018 마을in수다. 서울: 성북문화재단.
- 성북구립도서관 (2022). 2022 마을in수다. 서울: 성북문화재단.
- 윤영태 (2008). 미디어와 공간: 지역 공론장의 생산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8, 49-86.  
<http://10.35731/kpca.2008..8.002>
- 이성신 (2013). 공공도서관 서비스이용자 만족도와 충성도의 상관관계분석 및 매개변수.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83-103. <http://G704-000742.2013.24.1.003>
- 이연옥, 강영아 (2023).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139-160.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139>
- 이제환 (2020). 한국인의 일상에서 도서관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25-57.  
<http://10.16981/kliss.51.4.202012.25>
- 이현정, 남영준 (2015).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기대수준에 관한 연구: 고양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1), 43-63.
- 이희수, 김기영 (2014).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도서관 요구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207-230. <http://10.3743/KOSIM.2014.31.1.207>
- 장덕현 (2020).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요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 51-70. <http://10.4275/KSLIS.2020.54.1.051>
- 장덕현, 강은영 (2012). 부산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인문학논총*(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0, 201-223.
- 조용완, 구정화 (2021). 대구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주민인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3), 115-143. <http://10.14699/kbiblia.2021.32.3.115>
- 차성중 (201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만족도에 관한 연구: 2010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8(1), 285-308.  
<http://10.3743/KOSIM.2011.28.1.285>
- 표순희, 차미경 (2018).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 인식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221-244. <http://10.4275/KSLIS.2018.52.2.221>
- Alstad, C. & Curry, A. (2003). Public space, public discourse, and public librari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3(1), 1-19.
- Audunson, R., Aabø, S., Blomgren, R., Hobohm, H.-C., Jochumsen, H., Khosrowjerdi, M., Mumenthaler, R., Schuldt, K., Rasmussen, H., Rydbeck, K., Tóth, M., & Vårheim, A. (2019). Public libraries as public sphere institutions: a comparative study of perceptions of the public library's role in six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Documentation*, 75(6), 1396-1415.
- Audunson, R. (2017). The public library: an arena for an enlightened and rational public sphere? *The Case of Norway Information Research*, 22(1), 1-13.
- Buschman, J. & Leckie, G. Eds.. (2007). *The Library as Place: History, Community, and Culture*, Libraries.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 Goulding, A. (2009). Engaging with community engagement: public libraries and citizen involvement. *New Library World*, 110(1/2), 37-51.
-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1996.
-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2022.
- Kranich, N. (2012). Libraries and civic engagement. *Library and Book Trade Almanac*, 2012, 75-96. <https://doi.org/10.7282/T3VX0DWS>
- Vakkari, P., Aabø, S., Audunson, R., & Oomes, M. (2014). Perceived outcomes of public libraries in Finland, Norway & the Netherlands. *Journal of Documentation*, 70(5), 927-944.
- Webster, F. (2014).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4th ed.). London: Routledge.
- 조동기 역(2016). *현대정보사회이론*. 서울: 나남.

- Widdersheim, M. & Koizumi, M. (2016). Conceptual modelling of the public sphere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Documentation*, 72(3), 591-610.
- Williamson, M. (2000). Social exclusion and the public library: a Habermasian insight.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2(4), 178-186.
- Willingham, T. (2008). Libraries as civic agents. *Public Library Quarterly*, 27(2), 97-110.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 Sung-Jong (2011). A study on the user satisfaction of public library use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1), 285-308.  
<http://10.3743/KOSIM.2011.28.1.285>
- Chang, Durk Hyun (2020). Perceived needs of users toward public library services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1), 51-70.  
<http://10.4275/KSLIS.2020.54.1.051>
- Chang, Durk Hyun & Kang, Eun Yeong (2012). Citizen perceptions and demands on public libraries in Busan. *The Journal of Humanities*, 30, 201-223.
- Cho, Young Wan & Koo, Jung Hwa (2021). Citizens' perception on establishing a new public library in Jung-gu, Daegu.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3), 115-143. <http://10.14699/kbiblia.2021.32.3.115>
- Kim, Choae & Kim Giyeong (2021). The mediation effect of the users' perception of librarians' specialty: on the influence of public library activity on public library percep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4), 83-112.
- Kim, Sun Ae & Kown, Na-Hyun (2020). Citizens' needs and perceptions of their municipal public libra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29-52. <http://10.4275/KSLIS.2020.54.2.029>
- Lee, HeuiSoo & Kim, Giyeong (2014). Study on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for library services based on community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ree types of local comm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207-230.  
<http://10.3743/KOSIM.2014.31.1.207>
- Lee, Jae Whoan (2020). Meanings of library in the daily life of Korean. *Journal of Korean*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25-57.  
<http://10.16981/kliss.51.4.202012.25>
- Lee, Seongsin (2013). Correlation between public library service user satisfaction and loyalty and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83-103. <http://G704-000742.2013.24.1.003>
- Lee, Yeon Ok & Kang, Young Ah (2023). A study on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as community public sphe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1), 139-160.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139>
- Pyo, Soon-Hee & Cha, Mikyeong (2018). A comparative study of the perceptions on public libraries between librarians and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221-244. <http://10.4275/KSLIS.2018.52.2.221>
- Seongbuk Public Library (2018). 2017 Maeul in Suda. Seoul: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Seongbuk Public Library (2019). 2018 Maeul in Suda. Seoul: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Seongbuk Public Library (2022). 2022 Maeul in Suda. Seoul: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Yi, Hyunjung & Nam, Young Joon (2015). A study on the expected level of users of the public library: focused on the public library of Goya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1), 43-63.
- Yoon, Young-Tae (2008). A study on production of local public sphere.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8, 49-86. <http://10.35731/kpca.2008.8.002>